

“북한산’ 공약 이행으로 풀어야”

정부가 북한산 공론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조계종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문제를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동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공정성과 전문성에 우려의 뜻을 표하며 공론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북한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법장 총무원장, 이창동 문화부 장관에 강조



◇10월 21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공론조사 설명회에서 환경문제가 공론조사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법장 스님은 10월 21일 총무원장실에서 이창동 문화부 장관과 만나 "북한산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고 정치적 사안인데 그렇게 (공론조사로) 풀 문제가 아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하는데 (공론조사는) 그렇지 않다"며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총무부장 성관 스님과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존 노선과 마찬가지로 정밀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선재검토위의 최종 보고서가 참여 전문가 합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불신을 먼저 씻는 것이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론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는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고,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백지상태에서 할 것이다. 그러나 대안노선 실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하면서 함께 병행하는

법장 스님 “공정한 게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창동 장관 공론조사·대안노선 실효 병행 가능

불교단체 등 북한산 살리기운동 갈수록 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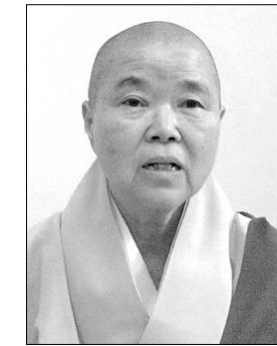
다"고 지적하고 "노선재검토위의 최종 보고서가 참여 전문가 합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불신을 먼저 씻는 것이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론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는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고,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백지상태에서 할 것이다. 그러나 대안노선 실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하면서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공론조사와 관련 연석회의는 2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공론조사에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1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공론조사 설명회에 관해서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동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 공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찬반양측이 각자 알아서 작성하는 자료 등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는 26일 회동사 경내에서 개최된 '아

“교육·수행·복지·문화포교 강화

아름답고 훌륭한 비구니회로”

제7대 전국비구니회장 취임 명성 스님



지난 9월 22일 전국비구니회 확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7대 비구니회장에 추대된 명성 스님(사진)이 10월 22일 취임명회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명성 스님은 "수행과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비구니 스님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아 불교, 미국 유럽의 불교 등 세계불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이 들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인문제에 눈 돌릴 때다."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대해 말했는데, 계획은? "‘셋가의 딸’(Sakyadhita)이라는 대외 명칭에 손색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전에 네덜, 대만 등에서 열렸던 회의를 참고하고 준비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잘하려는 마음이 과하면 허영심에 지나지 않으니 욕심을 버리고 우리 형편에 맞도록 알차게 꾸리려고 한다." ▲회장으로서 비구니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실천하기 전에 말을 앞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보다는 실천을 먼저하고, 겉치레보다는 속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소감은? "뜻하지 않게 막중한 소임을

세계 여성불자대회 형편에 맞게 준비

의존·맹종 습관 버리고 불교대중화 앞장

말야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눈앞에 가로 놓인 느낌이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처럼 점점 더 아름답고 훌륭한 비구니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처음 회장직을 요청받았을 때는 이미 운문사에서 맡고 있는 소임이 있었고 나이도 많아 극구 사양했다. 내가 사임함으로써 역대 비구니회장의 연령을 70대에서 60대로 혁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스님의 율해 세수는 71세다. 발백심비백(髮白心非白), 머리털은 희어도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다는 서산 대사의 말씀처럼 30세를 소급하는 마음가짐으로, 젊게 일하겠다." ▲비구니의 사회참여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비구니 승단이 개인 수행에만 집중한다면 발전이 없다.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국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야를 넓혀 등

▲비구니회의 발전방향은? "광우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께서 일깨우시는 비구니회관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숨을 쉬는 회관, 활기찬 회관을 만들기 위해 교육, 수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복지, 문화 포교 등의 역할도 늘리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러 고문 스님들과 상의해 지혜를 내겠다."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의 역할과 이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한국 비구니는 의존과 맹종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 특히 여성불교의 선구자로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발휘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한다."

군불위 공청회 개최

군승특별교구 설치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은 10월 22일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총무원과 예비역 불자회, 현역 군법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제도 명칭, 교구장 선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군승특별교구 명칭 핵심 쟁점

교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에 있다. 이 같은 군승특별교구 추진은 개신교가 군복음화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주교가 군종교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치열한 군내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군 포교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군불위- 특수성 감안을 총무원-군포교가 목적

11월 예산중회 본회의서 표결로 결론날 듯

△상임회의 가능 △분담금 납부의무 △상벌규정 등이 논란을 빚어왔다. 이 중 교구명칭과 교구장 상근직 여부, 분담금 등의 문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총무원과 군불교위원회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명칭문제다. 군불교위원회측은 군법사 위상강화, 재산귀속문제, 군법사의 신분상 특수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반교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별' 교구로 설치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총무원은 군승교구가 군 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명칭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중앙총회 포교

분과위원장 지현 스님은 이와 관련, "군승 '특별' 교구로 설치되는 것에 별다른 무리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중회 본회의 상정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교구장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군불교 상임회의의 추천을 통해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중앙총회와 총무원, 군불교위원회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구장 상근직 문제에 대해 총무원과 군불교위원회는 종단현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있다. 지현 스님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군 포교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구장이 상근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심쟁점

그간 군승특별교구 설치와 관련 △교구명칭 △결혼금지조항 △교구장

◆추진배경

군승특별교구 설치 목적은 군 포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지장원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생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성 배려

제2차 1029일간 영가천도 기도법회 동참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동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7차에 걸친 몽고의 혹독한 외침으로 국가가 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자 국왕(고려 고종)과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한자씩 정성껏 담아낸 해인사팔만대장경은 국민화합의 원천이자 국난극복의 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750여 년 간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 해온 이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목판팔만대장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보존 유지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리고 인류문화의 보고(寶庫)이자 한민족의 위대한 가치인 팔만대장경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청동판 복원불사**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또 하나의 민족적 과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팔만대장경 조성으로 극복해냈듯이, 현재 우리에게 처한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의 민족적 과제 등 내외위환의 어려움을 **해인사팔만대장경 인청동판 복원불사**를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로 극복해내고, 국민대화합, 국운융창과 조국의 통일, 세계평화를 발원코자 성스러운 불사를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불사에 많은 성원과 동참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국난극복을 위해 조성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국운융창, 국민대화합,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위해 인청동판(靑銅板)으로 복원 조성합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 최고의 품질로 수명 만년이상인 (주)통산에서 생산된 인청동과 우연MS(주)의 기술로 조성된 팔만대장경

해인사 1029일간 제1차 영가천도 기도법회 회향 및 제2차 영가천도 기도법회 입제 안내문

귀의삼보하옵고, 한국 최고의 수행도량이며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해인사에서는 **양력 11월 3일(음 10월10일)** 제1차 1029일 영가천도 회향식과 동시에 제2차 영가천도 기도법회 입제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와 모든 조상의 천도는 물론 호국영령과 유주무주 일체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조계종 중정 도림 법전 큰스님과 원로대덕 큰스님들의 범어와 함께 봉행하는 해인사 1029일 영가천도기도법회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이번 제2차 해인사 영가천도기도법회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인청동판 팔만대장경에 동참자 직계가족(혹은 영가)의 성명과 주소를 정성껏 새겨서 해인사 박물관에 임시 모셨다가 앞으로 지을 팔만대장경 범당에 다시 모셔드립니다. 최상의 범공양인 인청동판 팔만대장경을 해인사 정경범당에 모시는 최유한 인연을 살아생전에 이루시어 집안 대대로 무량공덕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판 팔만대장경만 해인사 정경범당에 봉안할 뿐이나 가정 혹은 회사에 모실 분도 현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입제일 : 양력 2003년 11월 3일 ●회향일 : 양력 2006년 8월 28일

※ 천도제 동참금 : 100만원(동판대장경 1장 포함 : 해인사에 영구보존)
※ 동판팔만대장경 1장 : 50만원(경판만을 해인사나 가정에 모실 분)
※ 팩스번호 : (055) 934 - 3107
※ 계좌번호 : 동 협 843174-51-009176(해인사 천도법회)
우 체 국 611806-01-002618(해인사 천도법회)
우리은행 099-344318-02-001(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문의 : 055)931 - 8771, 934 - 3105 ~ 8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박세민 합장